

광주 남구, ‘가파른 경사로’ 등 장애인 주택 개조한다



광주 남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청에

올해 4,160만원 투입해 11가구 시설개선 추진
문턱 낮추기 등 이동 편의·삶의 질 향상 기대

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위·수탁 협약식이 열렸다. 남구는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자활기업인 드림하우징과 손잡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올해 장애인 주택 개조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4,160만원으로, 관내 등록 장애인 주택 1곳당 380만원 정도를 지원해 총 11가구를 수리할 계획이다. 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가구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관내 장애인 주택 11가구에 대한 개조 사업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재가 장애인이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이동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일상 생활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 주택에 설치하는 각종 편의시설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해당 가구의 의견을 수렴, 각 가정에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주로 화장실 및 주방 보수를 비롯해 현관과 거실 출입문 문턱 낮추기,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 경사로 정비·설치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집안 시설의 변화로 신체의 이동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장흥군 안양면 지사협, ‘정기회의·희망채움 냉장고’ 개소식

안양면 행정복지센터 1층에 설치하여 연중 운영



장흥군 안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안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관내 면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뜻깊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회의는 제3대 민간위원장 선출, 2020년 특화사업 추진사항 보고, 2021년 특화사업 추진 계획 및 기부 릴레이 방안 등의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김영중(안양농협 조합장) 신임 민간 위원장은 “안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복지 사각 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기회의 이후에는 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안양면 희망채움 냉장고’ 개소식을 가졌다. ‘안양면 희망채움 냉장고’는 안양면 행정복지센터 1층에 설치하여 연중 운영한다.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한 물품은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거동 불편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하여 기부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기자



곡성군,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현판식 개최

목포시,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 행사

다음달 2일까지 워크온 앱 이용해 하루 만보 걷기

목포시가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극복 캠페인 확산을 위해 목포시가 매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치매에 관심이 있는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걸기 플랫폼인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2021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에 참여한 후 휴대폰을 가지고 걸으면 된다. 하루 만보 제한으로 3주 동안 목표 걸음 15만보를 달성한 시민 선착순 300명에게는 행사 종료 후 목포사랑상품권 1만원권이 제공된다. 목포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개인 차원의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치매와 관련된 모든 궁금한 사항은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목포시치매안심센터(270-4271~2)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기자

곡성군이 곡성교육문화회관을 2021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하고 4월 8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이란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치매 정보를 전달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도서관이다. 선도도서관으로 지정된 곡성교육문화회관 도서관에는 독립적인 치매도서 코너가 설치되고 치매 관련 도서와 간행물 등이 비치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곡성군 보건의료원 보

건과장, 곡성교육문화회관장, 치매안심센터 구성원 등이 참석해 제막식과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곡성교육문화회관 박정희 관장은 “치매 도서 코너 뿐만아니라 저시력자를 위해 큰 글자 도서, 오디오북, 독서 보조기기 등이 준비돼 있다. 주민들이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와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곡성군 보건의료원 보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